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여수시, 지난해 여의도 면적 '조상 땅 찾아줘'

### 조상 땅 찾기·안심상속 서비스 통해 조상 땅 2687필지 293만㎡ 찾아

여수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 1944명이 조상 땅 2687필지, 293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 보다 크고, 평균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58억 원에 달한다. 또 전년 대비 이용자는 141명이 늘었고 조상 땅은 22만㎡를 더 찾았다.

'조상 땅 찾기'는 지인들이 모르는 조상 명의 토지나 토지현황을 알 수 없는 본인 명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 금융내역, 연금, 자동차 등 각종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제적증

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민원지적과(☎59-3351)나 중부민원출장소(☎659-5201)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완도군, ASC·MSC 인증 확대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 전북 300여가·해조류 100여가·광어 등 ASC 인증 확대 추진



완도군은 지속가능한 어업과 친 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MSC)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14일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최근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출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제 인증 제도인 ASC(세계양식관리협회) 및 MSC(세계해양관리협회) 관계자

와 국내 관계기관 전문가 ASC 추진 어가, 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지속가능한 어업과 국제 인증 제도, 지속가능한 수산물 관리와 전락, 한국 내 지속가능 수산물 국제 인증 제도의 실천 방안 및 과제에 대해 국제 참가자인 코지 아미모

토(ASC Japan)는 세계수산양식관리협회(ASC) 인증과 상표 프로그램, 왕송린 대표(중국 칭다오해양보전협회)는 지속가능한 양식을 위한 중국의 ASC 인증 경험, 사토시 미에가와(WWF Japan)는 일본의 국제 인증 수산물 양식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국제 인증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MSC 한국본부, 오션아웃컴즈 등과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업자협회,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 현황과 국내 전복 수급 동향, 완도군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군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완도군이 해양 환경 및 소비, 수출 시장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암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스타트

### 실속있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높은 호응 기대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농산물 가공창업교육(2기 심화반)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10회차 과정으로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된 2기 기초반

수료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방안과 제품 홍보 전략, 농산물 가공 창업 관련 법규 등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할 과목 위주로 편성되었다.

교육 첫 날, 한 수강생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창업교육을 통해 영암군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공식품을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농산물 가공을 통한 융복합산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공분야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늘리기에 앞장 서기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담양군, '숲속의 담양 만들기' 본격 추진

###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착수·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담양군은 18일 담양군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성공적인 '숲속의 담양 만들기'를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군은 청·장년

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가로수 하천숲, 생활환경숲의 관리를 통해 병충해 및 강풍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의 흙덩굴을 제거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안전사용 요령과 사고 발생사례, 주요 사업과 장비별 안전작업,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로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산림사업 추진으로 숲속의 담양 만들기와 천년숲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생태정원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진도군, 이동 금연클리닉 등 운영



진도군 보건소가 새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와 금연 중인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금연 클리닉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연중 금연 클리닉을 운영,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 각종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

하고 체질에 맞게 금연보조제(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를 무료로 제공하며,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1:1 맞춤 상담으로 6개월간의 금연 과정을 관리한다.

또 담배가 미치는 건강의 유해성 교육 및 흡연자 중심의 집중적인 치료로 금연유도, 영양교육 및 상담, 금연유도를 위한 스트레칭, 금연 관련 홍보물 배부, 6개월 이상 성공자에게 금연 성공 기념품 지급 등 금연성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업과 직장 생활 등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회순군, 심야버스 운행 횟수 늘린다

회순군이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주종합터미널에서 회순 대리까지 하루 3회 운행하던 심야버스의 운행횟수를 추가한다.

주간 택차(21:35)와 심야 첫차(22:30) 운행 간격이 길어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10에 출발하는 심야버스를 추가 운행한다.

심야 버스는 2011년 8월에 운영을 시작해 낮은 시간 귀가하는 시외 버스 이용자, 광주 통학 학생 등 하루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회순을 대리까지 운행하는 심야 버스는 22:10, 22:30, 22:50, 23:20에 광주종합터미널에서 총 4회 출발한다.

회순=박순철 기자

# 강진군, 겨울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역점 추진

### 한파대비 건강관리 수칙과 낙상예방 주의 방문 관리

강진군은 동절기 독거노인, 만성 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및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위험요인 파악,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진군보건소는 동절기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3026가구 3604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건강관리 수칙과 낙상예방 행동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

온증(35℃ 이하)의 위험성이 높고 지고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희미 보건소장은 "방문간호사의 활발한 활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문제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